ISSUE 004

모람모람

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 Magazine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신문사

목차

CONTENTS

01 자유와 평화를 먹고 태어난 괴물, 히피

02 원더리벳 2025, 일본 음악의 감동을 다시 느끼다

03 시간여행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라인 A to Z

04 '패션' 영화 속 캐릭터를 빛나게 하다

05 밥먹고 멍해지는 대학생들을 위한 혈당 리포트

06 강릉이 품은 천혜의 자연유산, 경포 습지와 경포호

07 국민 스포츠 야구 알고 보면 더 재밌다!

08 식탁 위 감각, 테이블웨어로 읽다

09 한국, 여전히 FPS의 벽을 넘지 못하다

10 15초의 마법? 숏폼이 바꾼 음악의 풍경

11 특집_독서의 계절 '가을' 서로 다른 색을 가진 책, 영화

자유와 평화를 먹고 태어난 괴물, 히피

권혁주 기자

끊이지 않는 세계의 긴장 속에서 '평화'라는 말은 점점 무색하게 느껴진다. 이럴 때일수록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 전쟁을 거부하고 사랑을 외쳤던 집단,히피 '(hippie)'. 하지만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다. 자유과 사랑으로 포장된 그 문화는 과연 끝까지 아름다웠을까?

히피(hippie)는 196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반문화 운동 집단으로, 비폭력과 자연주의를 표방했다. 당시 미국은 경제성장과 동반된 부의 편재(偏在)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된 상태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케네디 대통령 암살, 성과주의 사회의 지나친 보수화, 정부의 베트남 전쟁 개입으로 체제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이에 반발한 젊은이들이 내놓은 해답은 자유와 사랑. 기존의 사회질서를 부정하고, 인간성의 회복과 자연으로의 회귀를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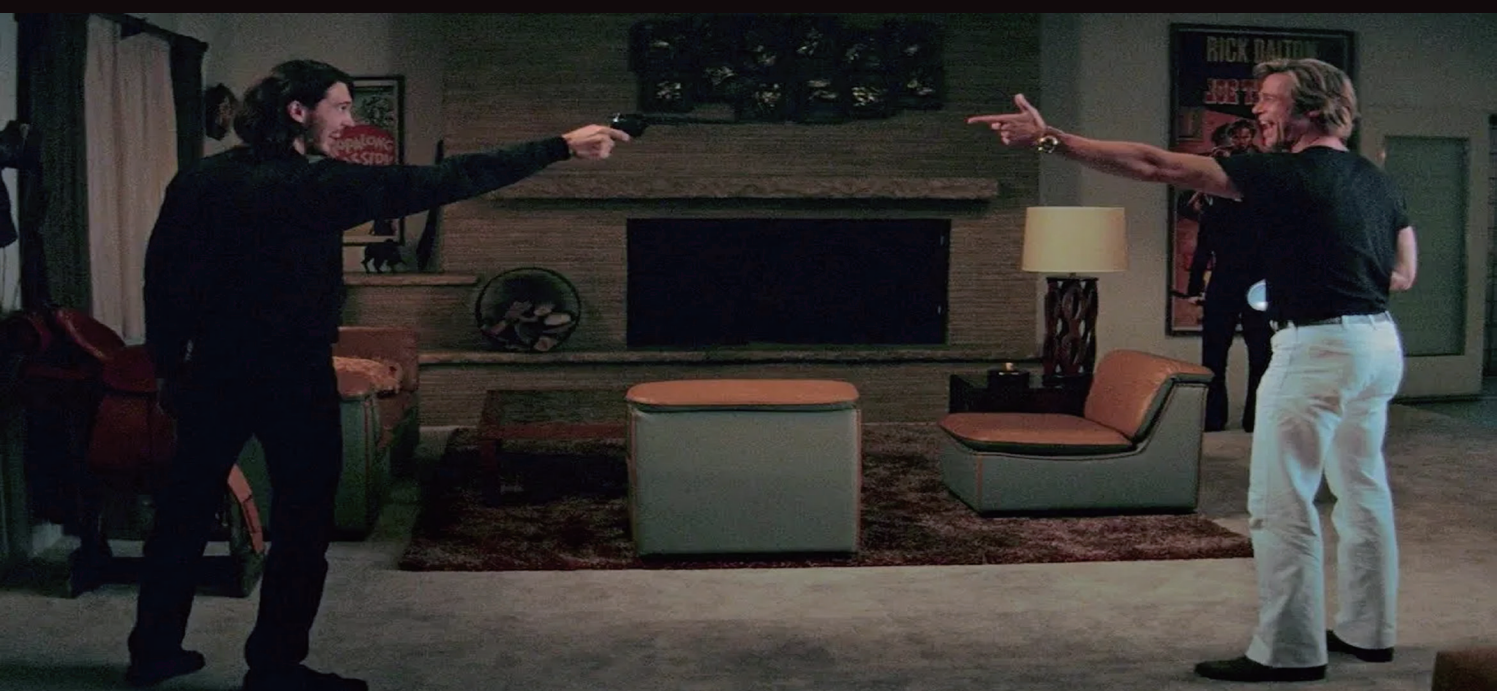
록을 품은 자유의 성지, 우드스톡

당시 사회에 퍼진 히피 문화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다. 이들이 내세운 반전(反戰)과 평화주의,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 쾌락주의는 현대 문화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정신은 록 음악과 결합하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했다. 제퍼슨 에어플레인, 지미 헨드릭스, 크림 등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이 히피 사상에 감화되었고, 음악은 그들의 큰 무기가 되었다. 심지어 비틀즈조차 히피 세대의 사조를 따랐던 것을 생각하면 그 영향력의 의미를 엿 볼 수 있다.

이들의 영향이 닿은 곳은 단순한 음악 사조뿐만 아니었는데,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 페스티벌 중 하나인 '우드스톡(Woodstock)'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록 페스티벌의 시초로, 1960년대 후반 히피 문화가 절정에 다다를 시기에 등장한다. 제1회 우드스톡의 입장객 수는 최소 30만 명 이상으로 입구를 부수고 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아 현재까지 그 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드스톡이 열린 사흘은 그야말로 '광란' 의 파티였다. 진흙을 뒤집어쓰고, 공연을 즐기며, 쉴 새 없이 마약을 해댔다. 그곳은 난장이었지만, 동시에 록 음악을 품은 자유의 성지였다.

원스 어폰 어 타임… with 히피

당시의 히피가 자유와 평화를 표방했지만, 현대 사회의 시선에서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이 내세운 쾌락주의와 신비주의. 곧 마약과 집단 난교로 향하는 이 두 사상은 분명한 히피 문화의 암(暗)적인 부분이었다. 특히 LSD와 마리화나(마약의 일종)를 빼놓을 수 없는데, “Turn On, Tune In, Drop Out”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약물 사용을 통한 정신 구조의 확장을 주장했다. 이때 생긴 단어가 바로 ‘trip’. 마약을 통한 정신세계의 탐험을 뜻하는 말로, 이 단어는 현재까지도 마약을 경험했다는 은어로 쓰이고 있다.



이 어두운 이면을 담은 상징적인 작품이 바로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이 영화는 1969년, ‘맨슨 패밀리’ 라는 이름의 히피 집단이 일으킨 끔찍한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영화 속 맨슨 패밀리는 브래드 피트의 손에 처참하게 살해당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 맨슨 패밀리는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집을 습격하여 그의 아내이자 유명 배우인 샤론 테이트를 포함한 5명을 난도질해 죽였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샤론 테이트는 태아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들은 그녀를 16번이나 찔러 살해한다. 세간에 충격을 준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훗날 히피의 몰락에 큰 원인이 된다.

히피의 몰락, 맨슨 패밀리

영원할 것 같던 자유와 평화의 외침에도 결국 그림자가 드리웠다. 찰스 맨슨이 극단적인 히피 집단의 교주로 군림하며, 어린 히피들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맨슨 패밀리’라 불린 이들은 불법 약물 복용과 집단 난교, 살인을 일삼았다. 히피들의 ‘사랑’을 악용한 찰스 맨슨은 카리스마 있는 사이비 교주로 신격화되었고, 그의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영화 등 대중문화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맨슨 패밀리는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이 주를 이뤘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들이 이토록 결집했던 이유는 히피의 ‘공동체 생활’이 큰 역할을 했다.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이가 많았던 맨슨 패밀리는 집보다 히피 공동체를 사랑한 것이다. 평화의 뒤에 숨어, 살인을 저지른 범죄 집단. ‘책임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이들의 모순성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히피의 몰락을 이끌었다.

원더리벳 2025, 일본 음악의 감동을 다시 느끼다

강준혁 기자



지난해 성공적인 첫 개최로 화제를 모았던 '원더리벳'이 2025년에도 돌아온다. 일본을 대표하는 인기 밴드부터, 지금 가장 주목받는 신예 아티스트까지 한데 모이는 이 음악 페스티벌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일본 음악의 다층적인 매력을 국내에서 직접 체감할 드문 기회다.



지난 8월 11일 공개된 1차 라인업에는 금요일 헤드라이너로 일본 록밴드 BUMP OF CHICKEN이 이름을 올리며, 무려 17년 만의 내한 공연 소식이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회자되었다. 올해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열릴 예정이며, 음악적 스펙트럼은 물론 세대 간 균형도 고르게 구성돼 있어 다양한 관객층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1차 라인업 공개 총 30팀, 세대와 장르를 잇는다.올해 ‘원더리벳 2025’는 단순한 ‘유명 밴드 나열’에서 그치지 않는다. 베테랑과 신예, 밴드와 솔로, 록부터 시티팝, 일렉트로닉, 알앤비까지 그 폭넓은 라인업이 바로 이 페스티벌의 정체성을 설명한다.



첫째 날 무대에는 일본록 팬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이름들이 포진해 있다. 감성적 록의 대명사 BUMP OF CHICKEN, 세련된 팝 록 사운드의 MACARONI EMPITSU, 독창적인 세계관의 싱어송라이터 TOOBOE가 무대를 채우고,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로 주목받는 ano가 합류해 색다른 매력을 더한다. 여기에 국내 밴드 NORAZO까지 함께하며, 예상치 못한 무대 시너지를 기대하게 만든다.

둘째 날은 더욱 폭넓은 장르 실험이 돋보인다. KIRINJI, SUKIMASWITCH 등 일본 퓨전 팝의 내공 깊은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열고, 감성적인 사운드로 떠오르는 NOMELON NOLEMON, Omoinotake가 분위기를 이어간다. 여기에 국내 밴드 Silica Gel이 합류해 무대의 다채로움을 더하며, 애니메이션 나루토 질풍전의 OST Blue Bird로 큰 인기를 얻은 이키모노가카리까지 참여해 토요일 라인업의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린다.

마지막 날은 가장 다채롭다. 폭발적인 무대의 SPYAIR, 정교한 밴드 사운드를 자랑하는 UNISON SQUARE GARDEN, 독특한 세계관과 퍼포먼스의 QUEEN BEE, 그리고 요즘 일본을 중심으로 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MAISONdes, Chilli Beans. 등이 대거 참여한다. 국내 아티스트로는 10CM, Penthouse, HANRORO가 함께한다.



첫 내한 아티스트 대거 참여

이번 페스티벌은 특히 첫 내한 무대를 갖는 일본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스트리밍이나 SNS를 통해 접하던 음악을 실제 무대에서 직접 마주할 기회는 흔치 않다. 익숙한 이름보다, 처음 듣는 이름을 검색해보는 재미가 더 클 수도 있다.

한국 아티스트와의 교류도 기대

올해도 일부 국내 아티스트들이 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하면서, 한·일 아티스트 간의 무대 교류도 가능해졌다 장르를 넘어 음악이 연결되는 진짜 페스티벌. 원더리벳은 더 이상 '일본 밴드만 나오는 공연'이 아닌 국제 페스티벌로 도약하였다.



시간여행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라인 A to Z

"축하합니다! 타임머신 티켓 발권이 완료되었습니다."

가까운 미래, 만약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지는가? 1986년 8월 9일 퀸의 콘서트?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날? 그것도 아니라면 더 먼 과거나 미래? 시간여행이 가능해진다면, 어느 시간이든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고민도 잠시, 이 여행은 친절한 가이드도 없고, 데이터가 전혀 터지지 않는 극한의 자유여행이다. 나의 사소한 작은 실수가 역사를 바꾸거나, 내가 역사 속 미제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여기 익명의 누군가 배포한 "시간여행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라인 A to Z" 을 숙지하고 생존 확률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보도록 하자.

김규완 기자



A - Alias(가명)
· 당신의 본명은 잊을 것. 미래의 인물이나 과거의 인물로 밝혀지는 순간, 당신은 연구 대상이나 사기꾼이 될 것이므로, 방문할 시대에 맞는 평범하고 잊기 쉬운 이름 하나를 미리 준비할 것. □

B - Barter(물물교환)
· 당신의 카드나 현재 세계의 지폐는 플라스틱 조각이거나 종이 조각일 뿐이니, 소금이나 설탕, 항생제 등 시대를 막론하고 가치가 있는 교환품을 챙길 것. □

C - Camouflage(위장)
· 눈에 띄는 순간, 당신은 표적이 되므로, 현지인과 구별 불가능한 의복과 헤어스타일을 갖추는 것을 생존의 제1원칙으로 삼을 것. □

D - Disease(질병)
· 당신에게는 감기일 뿐인 바이러스가 과거인에게는 흑사병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니, 떠나기 전 해당 시대에 유행했던 질병을 파악하고 대비할 것. □

E - Ethics(윤리)
· 불쌍한 사람을 돕거나, 역사적 비극을 막고 싶어도 당신의 선의가 어떠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므로, '절대 개입 금지' 원칙을 명심할 것. □

F - Fire(불)
· 파이어 스타터나 라이터는 문명의 상징이자 생명의 동아줄이며 체온 유지, 음식 조리, 야생 동물 퇴치에 필수적이니 반드시 챙길 것. 다만, 뒷정리는 깔끔하게 할 것. □

G - Gold(금)
· 금은 생각보다 만능이 아니며, 외딴 마을에서는 금덩이보다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이 더 가치 있을 수 있으니, 금보다 소금을 믿을 것. □

H - Hygiene(위생)
·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위생 관념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휴대용 정수 필터와 비누, 항생제 등을 반드시 챙길 것. □

I - Immunity(면역력)
· 당신의 몸은 21세기 세균에 최적화되어 과거나 미래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0에 가까우니, 출발 전 비타민이라도 꾸준히 챙겨 먹을 것. □

J - Jargon(슬랭/유행어)
· "대박", "어쩔티비" 같은 단어는 외계어처럼 들릴 뿐이니, 당신의 언어가 당신을 외부인으로 낙인찍지 않도록 주의할 것. □

K - Knowledge(지식)
· 최고의 무기는 당신의 머릿속에 있으니, 방문할 시대의 정치, 사회, 지리적 정보는 물론, 간단한 응급처치법과 생존 기술을 반드시 숙지할 것. □

L - Language(언어)
· 같은 한국어여도 시대에 따라 용법과 억양이 다르니, 기본적인 옛날 말이나 방언을 익혀둘 것. □

M - Medicine(의약품)
· 개인용 구급상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소독약, 밴드, 소화제, 항생제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 □

N - Navigation(항법)
· GPS는 없으니, 종이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밤하늘의 별자리를 읽는 법을 익힐 것. □

O - Observe(관찰)
· 말하기 전에 보고, 행동하기 전에 들을 것. 누가 권력자인지, 무엇이 금기인지 먼저 파악할 것. □

P - Paradox(역설)
· 후손이 조상을 살해한다는 할아버지의 역설을 시험해볼 생각은 하지 말 것. 자칫하면 당신의 존재가 소멸될 수 있으니, 과거의 당신이나 직계 조상과는 만나지 말 것. □

Q - Quiet(침묵)
· 섣불리 미래의 지식을 자랑하다간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과묵함을 유지할 것. □

R - Return(귀환)
·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 타임머신의 에너지원, 귀환 좌표, 비상 프로토콜을 반드시 숙지하고 Plan B를 만들어 둘 것. □

S - Story(이야기)
· 당신의 정체를 설명할 그럴듯한 커버 스토리를 준비할 것. □

T Tools(도구)
· 작지만 강력한 현대의 도구(멀티툴, LED 손전등, 튼튼한 로프)는 당신의 생존력을 배로 증가시키니, 반드시 챙길 것. □

U Undercover(잠입)
· 당신은 여행자가 아니라 잠입 요원처럼 행동할 것.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당신이 남기는 정보와 흔적을 최소화할 것. □

V Vaccination(예방접종)
· 파상풍, 공수병 등 현대에는 드물지만 과거에는 치명적이었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 □

W Water(물)
· 언제나 깨끗한 물은 모든 생존 활동의 기본,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 □

X X-factor(미지수)
· 당신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는 반드시 발생하니,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 □

Y Year(연도)
· 당신이 여행하는 해에 어떤 역사적 사건(전쟁, 기근, 역병 등)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위험 지역을 피할 것. □

Z Zero footprint(흔적 남기지 않기)
· 왔다 간 흔적을 남기지 말 것. 당신이 무심코 버린 물건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



‘패션’영화 속 캐릭터를 빛나게 하다.

송지훈 기자

현재는 과거의 영향을 받는다. 패션 역시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입는 청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머니 옆에 작은 포켓을 볼 수 있다. 무엇인가를 넣기에는 아주 작은 주머니가 불필요하게 달린 것이다. 그것은 그저 장식용일까?



그 작은 주머니의 용도를 동전 보관용 주머니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회중시계를 위한 주머니이다. 손목시계가 발명되기 전, 사람들은 회중시계를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녔다. 당시 고가였던 회중시계를 보관하기 위해 바지에는 전용 주머니를 만들었고, 주머니 속 시계를 쉽게 꺼내기 위해 체인을 바지에 걸었다. 회중시계를 착용하지 않는 현대에는 그 흔적만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정장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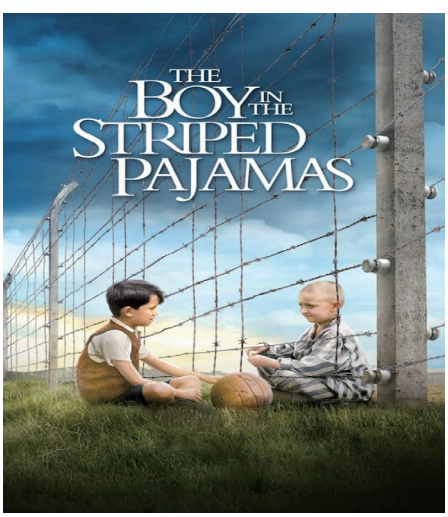
넷플릭스 드라마 '피키블라인더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키블라인더스' 라는 범죄 조직의 리더이자 중심축인 셸비 가문의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항상 셔츠에 베스트, 재켓 그리고 코트를 즐겨 입는다. 그리고 조끼에 체인이 하나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체인은 재켓 안쪽 주머니에 있는 회중시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작품 속에서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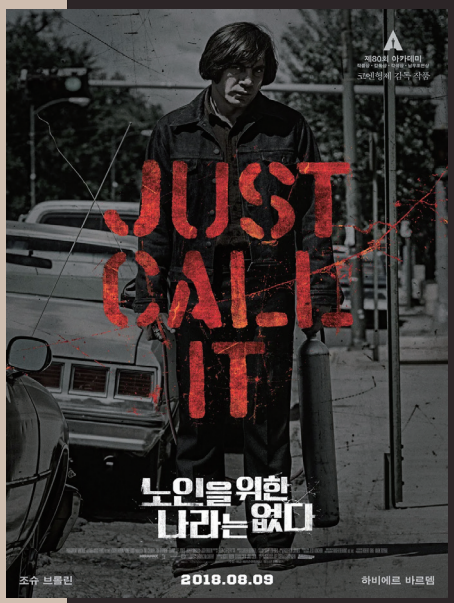
패션은 작품 속 캐릭터의 분위기를 강조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영화 '다크나이트' 의 메인 빌런인 조커는 채도가 낮은 독특한 무늬의 셔츠와 넥타이, 머리색과 같은 녹색 조끼, 회색 재켓 그리고 보라색 코트를 입는다. 그의 패션은 그가 얼마나 위험하고,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는지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다크나이트' 에서는 빌런의 분위기를 미스터리하게 만들었다면 '장고:분노의 추격자' 에서는 주인공 장고의 정장은 그를 관객들로 하여금 각인되게 만든다. 장고가 입고 나오는 새파란 정장을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색이 아니기에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영화 속 그 옷이 장고의 성격과 상황을 이해시키는 장치로 이용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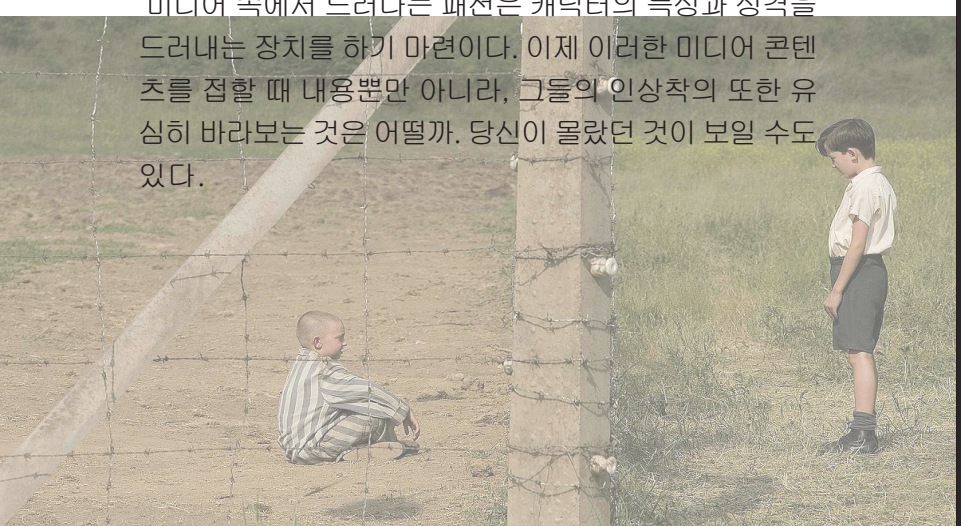




헤어스타일 역시 사람의 인상을 좌지우지한다. 사람들은 인상과 어울리지 않는 헤어를 보며 이질감을 느낀다. 대표적으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의 '안톤 쉬거' 의 헤어스타일은 도저히 그의 외모와 매치가 되지 않는다. 굉장히 좋은 머릿결, 1:9에 가까운 가르마, 똑단발을 한 사이코 살인마는 관객으로 하여금 그의 분위기를 혼동하게 만든다.

영화를 끌어나가는 요소로 패션을 사용하기도 한다.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에서는 두 아이의 복장만으로 그들의 차이와 당시 독일인들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관객 그리고 영화 속 캐릭터들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장치로 사용된다. '더 캡틴' 에서는 전쟁 속 군인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같은 사람이 다른 옷을 입는 것만으로 얼마나 다른 대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지, 말의 무게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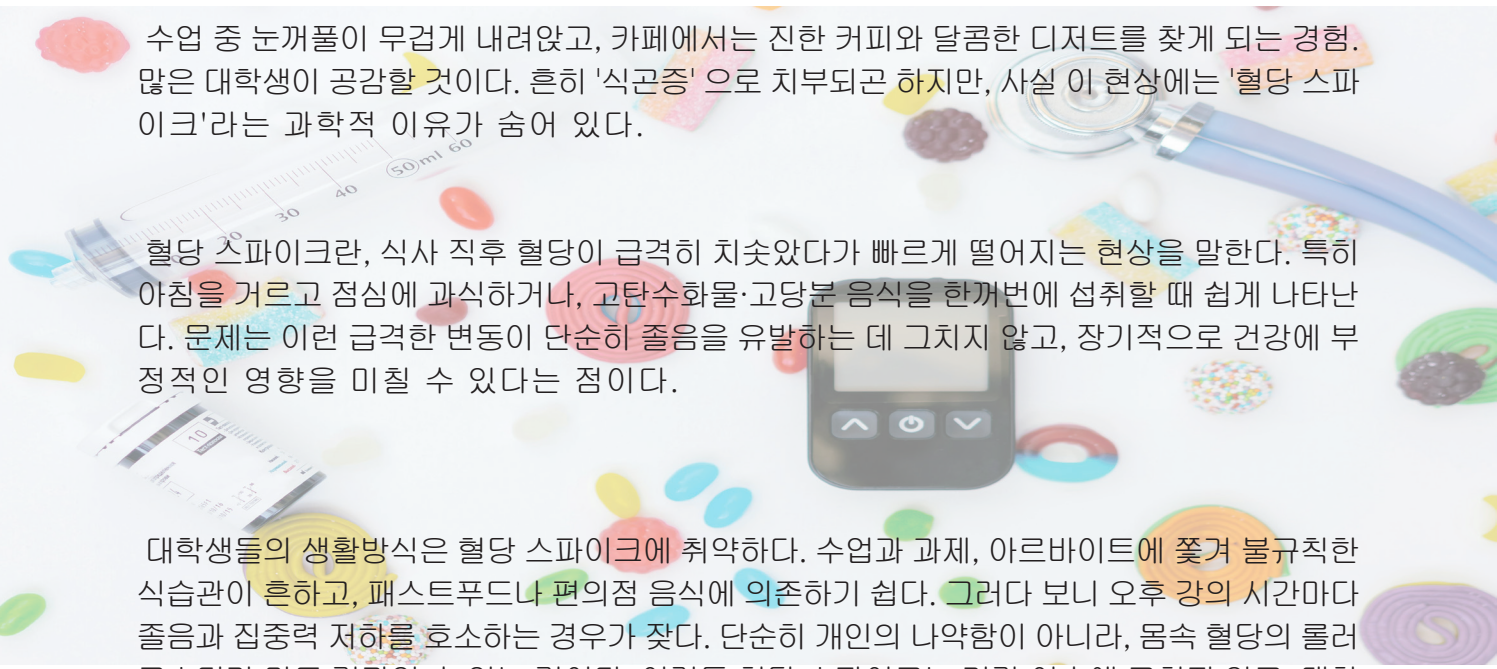
미디어 속에서 드러나는 패션은 캐릭터의 특성과 성격을 드러내는 장치를 하기 마련이다. 이제 이러한 미디어 콘텐츠를 접할 때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상착의 또한 유심히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당신이 몰랐던 것이 보일 수도 있다.



밥 먹고 멍해지는

대학생들을 위한

“"점심만 먹으면 왜 이렇게 졸릴까?"”



수업 중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고, 카페에서는 진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를 찾게 되는 경험. 많은 대학생이 공감할 것이다. 흔히 '식곤증' 으로 치부되곤 하지만, 사실 이 현상에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과학적 이유가 숨어 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직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과식하거나, 고탄수화물·고당분 음식을 한꺼번에 섭취할 때 쉽게 나타난다. 문제는 이런 급격한 변동이 단순히 졸음을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의 생활방식은 혈당 스파이크에 취약하다. 수업과 과제, 아르바이트에 쫓겨 불규칙한 식습관이 흔하고,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음식에 의존하기 쉽다. 그러다 보니 오후 강의 시간마다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잦다.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몸속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만든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혈당 스파이크는 건강 이슈에 그치지 않고, 대학생들의 학업 패턴과 직결된 문제다.

- ☑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
- ☑ 식사를 10분 안에 끝낸다.
- ☑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주로 한다.
- ☑ 식사 후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다.
- ☑ 단 것을 자주 많이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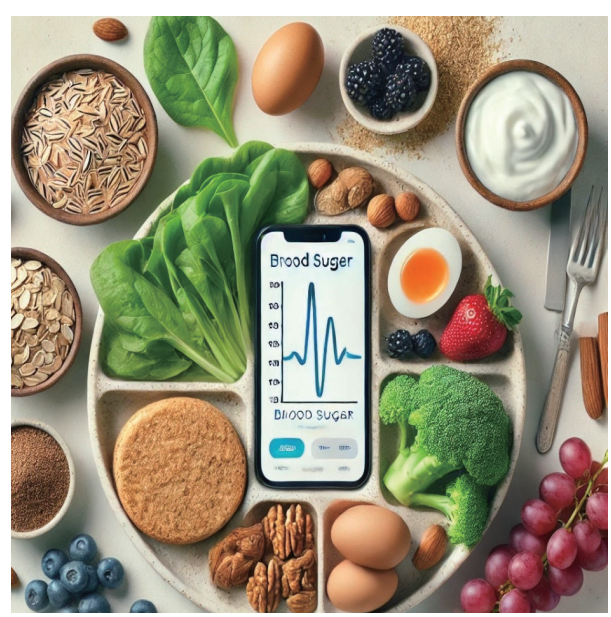
혈당 리포트

송민선 기자

전문가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려면 식사 순서와 식단 구성을 조절할 것을 권한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보다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과식보다는 소량을 나누어 먹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케이크와 같은 간식 대신 견과류로 대체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아침을 거르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밥 먹고 졸린 현상' 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복될수록 전반적인 컨디션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병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바쁜 대학 생활 속에서 완벽한 식습관을 지키기는 어렵지만, 작은 선택의 차이가 하루의 집중력을 바꾸고 미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혹시 오늘 점심에도 졸음이 몰려온다면, 혈당부터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





강릉이 품은 천혜의 자연유산, 경포 습지와 경포호

김동주 기자

동·식물과 도시인들이 어우러지며 잠시 지친 일상에서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자연환경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번에는 강릉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 환경인 경포호와 경포 생태 저류지를 소개하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생태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

생태 저류지를 시작으로 경포호까지 코스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생태 환경과 역사적 유산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먼저 생태 저류지의 경우 다양한 수생식물과 철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경포호를 지나는 길목에서 고요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다.

생태 저류지에서 시작한 자연과의 만남은 경포호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특히 경포호에는 가시연이 복원되어 있다. 강릉시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313,116㎡ 규모로, 1960년대 이후 사실상 멸종되었던 가시연을 복원했다. 그리고 각종 조류,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생태 탐방로가 꾸며져 있어 관찰 갑판을 걸으며 자연이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목도할 수 있다. 또한 경포호에서는 겨울철 큰고니를 비롯한 기러기 같은 철새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조류 관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없이 좋은 장소가 되어주고 있다.

경포호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홍길동전으로 유명한 허균과 시인으로 유명한 허난설헌을 기리는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유적이라기보다 잘 가꿔진 소나무숲과 전통가옥이 어우러진 곳에서 문학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것뿐 아니라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산책하며 휴식을 취하기 좋은 장소가 되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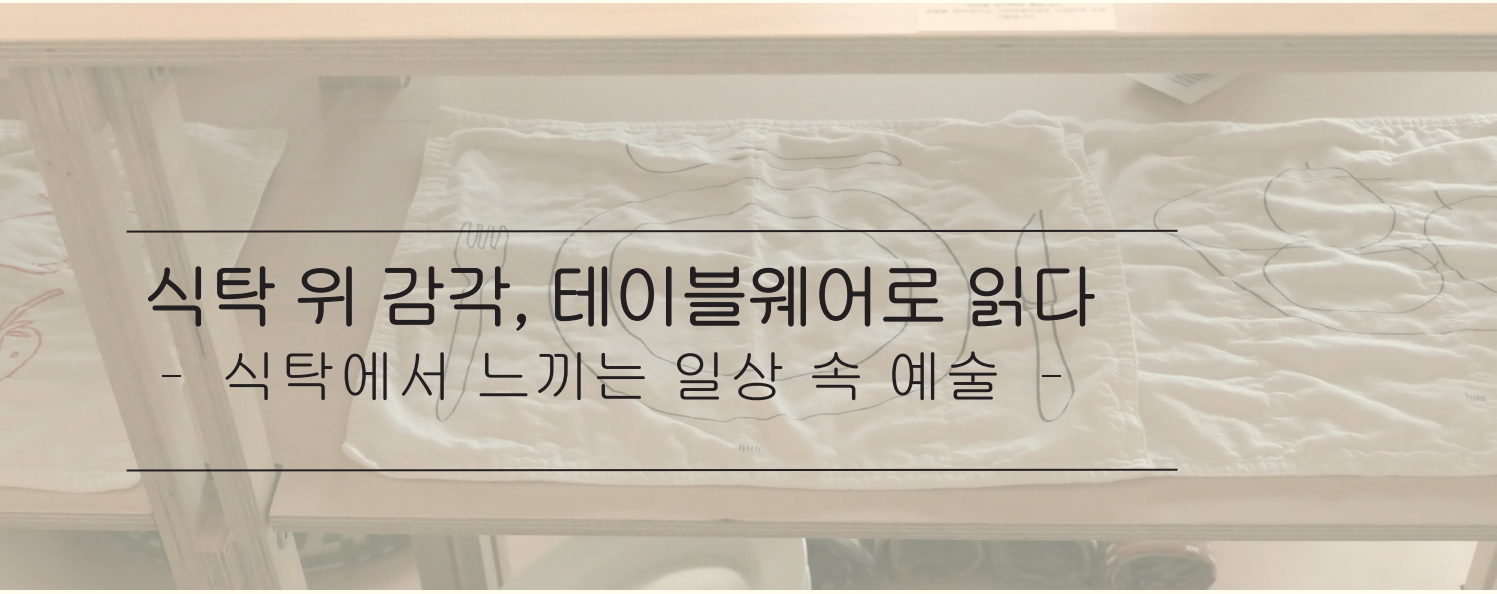
석호 일대를 관광지로 탈바꿈, 관광 개발인가, 난개발인가?

강릉 경포호 일대의 자연 환경이 보여주는 독특한 생태계는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천애의 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매년 활발하다. 특히 KBS 불후의 명곡은 경포호수 공원에서 특별편을 방영한 적이 있는 만큼 경포호 일대의 미적인 아름다움과 가치는 남녀노소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도리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이 생태계 훼손 등 환경을 파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강릉시는 작년부터 인공 호수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악화된 경포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목적을 위하여 호수 내에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대형 분수를 포함한 수중 산소 공급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공 호수와 경포호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임을 결성해 지자체와 대립했다. 시민 모임은 경포호의 수질 문제는 자연호수로서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며, 인공 분수 사업을 철회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 수질 검사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검사를 통해 경포호 개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실효성 검증을 거쳐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시민 모임은 인공 분수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자원으로서 자연 호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경포호 일대의 생태·역사학적 가치 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요성

경포호 일대의 장기적인 발전과 보존을 위해서는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논란은 개발의 실효성과 환경 훼손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와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경포호의 생태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투명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소중한 자산을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는 현명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식탁 위 감각, 테이블웨어로 읽다
- 식탁에서 느끼는 일상 속 예술 -

천지유 기자

한 접시, 한 잔, 그리고 가지런히 놓인 숟가락과 젓가락.

같은 음식이라도 그릇과 도구, 배치에 따라 전해지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진다. 필자는 마음에 드는 테이블웨어 세팅을 보면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사진을 찍고, 눈길을 사로잡는 아이템이 있으면 브랜드를 기억해 나중에 직접 구입하기도 한다. 이처럼 작은 테이블웨어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는 감각과 즐거움을 통해 우리는 식탁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테이블웨어의 정의와 가치, 테이블 위의 작은 예술, 그리고 강릉에 위치한 테이블웨어 샵까지 살펴보며 식탁을 다시 보는 즐거움을 소개한다.



|| 테이블웨어란 무엇인가?

테이블웨어(tableware)는 단순히 음식을 담는 그릇과 도구를 넘어, 식탁 위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능적 의미뿐 아니라 색감, 재질, 디자인까지 식탁 위 경험을 만들어내는 작은 예술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식문화와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일상의 즐거움을 읽을 수 있다.

|| 그릇과 커트러리, 첫인상을 결정하다

그릇과 커트러리는 식사의 첫인상을 좌우한다. 색, 모양, 재질, 크기가 음식과 어우러져 시각적 즐거움을 주고, 손에 닿는 질감과 무게가 촉각적 몰입감을 더한다. 예를 들어 같은 수프도 깊은 색의 도자기 볼에 담으면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지고, 밝은 톤의 접시에 담으면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 *여기서 커트러리(Cutlery)는 '식사에 사용하는 칼·포크·스푼 등 일체의 식도구'를 의미함



|| 작은 디테일이 만드는 차이: 냅킨과 키친 크로스

테이블 위의 작은 소품 하나로도 분위기와 식사 경험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계절감 있는 컬러의 냅킨을 접시 옆에 가지런히 놓거나, 패턴이 돋보이는 키친 크로스를 접시에 살짝 올려두면 테이블이 한층 세련되고 풍성하게 느껴진다. 접는 방식과 배치 위치까지 신경 쓰면, 같은 음식도 훨씬 감각적으로 즐길 수 있다.



|| 계절과 테이블웨어

계절에 따라 테이블웨어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 가을: 따뜻한 색과 나무·도자기 소재로 포근함 강조
- 겨울: 깊은 톤과 무광 텍스처로 안정감과 고급스러움
- 봄/여름: 밝은색과 가벼운 소재, 투명 유리로 산뜻하고 청량한 분위기

계절감을 살린 테이블 세팅은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 음식 경험 전체를 풍요롭게 한다.

|| 강릉, 테이블웨어 샵 추천

테이블웨어를 직접 보고 고르는 즐거움도 크다.
취향에 맞는 아이템을 골라 음식과 조화롭게 매칭하면 작은 선택 하나가 주는 만족감이 극대화된다.



_레드망치,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red_mangchi)
강원 강릉시 율곡로 2890-1
해외·국내에서 엄선한 수입 소품과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제안하며, 도보 거리 내에 1호점과 2호점으로 나누어져 두 곳에서 시각적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



__안도살림, 단정하고 조용한
(@andosalim_tableware)
강원 강릉시 임영로 202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고르고 소개하며, 동양적인 분위기의 매장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의 테이블웨어를 만나볼 수 있다.



__팔로디리몬, 세련되고 감각적인
(@palodelimon_)
강원 강릉시 남문길 22 1층 1호
우리 생활에 이로운 변화를 가져다줄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감도 높은 브랜드들의 테이블웨어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매장의 디스플레이가 매우 감각적이라 미적 영감을 얻기 적합하다.

실제 공간에서 다양한 테이블웨어를 경험하며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과정은 식탁을 더 풍요롭고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작은 선택 하나로 일상의 식탁이 달라진다. 테이블웨어를 통해 음식과 공간, 순간을 보다 섬세하게 즐겨보자.”

15초의 마법? 숏폼이 바꾼 음악의 풍경

윤재인 기자

틱톡이나 인스타 릴스를 켜면 익숙한 멜로디가 귀에 스며든다. 요즘 들어 노래 전체를 듣는 대신, 짧은 '훅(hook)' 구간으로 먼저 소비하는 게 당연해졌다. 이른바 '15초의 마법'이다. 짧지만 강렬한 구간이 전 세계를 흔들며 음원 전체의 인기를 좌우하는 시대. 이제 숏폼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도 숏폼 시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음악 소비와 제작, 유통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 숏폼이 가져온 긍정의 얼굴

우선, 숏폼은 음악 발견의 창구를 넓혔다. 시장조사 기관 Music Watch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사용자 68%가 짧은 동영상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발견한다고 한다. 실제로 Tommy Richman의 곡 'Million Dollor Baby&amp' 는 틱톡에서 수많은 패러디와 밈으로 확산된 뒤 스트리밍 차트에 오르고, 틱톡 빌보드 Top 50 차트에서 10주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무명 신인 아티스트였던 그를 세계적으로 알렸다.

이 흐름은 음악의 다양성을 확장하기도 한다. 국경과 언어의 벽을 낮추며, 장르와 문화를 초월해 새로운 곡들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발판이 되고 있다. 실제로 숏폼이 아니었다면 접하기 쉽지 않은 베트남이나 태국, 러시아 등등의 다양한 나라의 곡들이 틱톡 음원으로서 이른바 플로우(flow)를 타게 되며 알게 된 경험들, 다들 한 번씩 있을 것이다. 상업적 기회도 커졌다.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데이터 제공업체인 루미네이트 데이터(Luminate Data)에 따르면 숏폼 이용자들은 일반 스트리머보다 공연에 참여할 확률이 38% 높다. 단순히 '듣는 소비' 에 그치지 않고, 굿즈 구매나 공연 경험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뜻이다. 버클리 음대의 Rodney Alejandro 교수는 "틱톡은 아티스트가 발견되는 공간일 뿐 아니라, 곡 자체의 DNA를 바꾸고 있다" 고 언급했다.

- 그러나 남겨진 그림자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모두 반가운 건 아니다. 음악이 '15초짜리 바이럴 구간'으로만 소비되며 곡 전체의 완성도가 가려지는 문제가 있다. 팝스타 Halsey는 "틱톡 캠페인을 하지 않으면 레이블에서 곡 발매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창작이 시장 논리에 종속되는 사례로 꼽힌다.
또한, 알고리즘 중심의 소비는 음악을 획일화시킬 위험이 있다. 플랫폼이 추천하는 특정 사운드와 구성이 반복되면서, 결국 다양성을 키우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다양성을 갉아먹는 이중적 구조가 생기는 것이다.
무엇보다 체감하는 부분은 곡의 수명이 짧아졌다는 것이다. 차트 정상에 오른 곡들이 예전처럼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빠르게 교체된다. 관심의 단기화, 즉 '짧은 집중력'이 음악에도 반영된 것이다. 실제 연구에서도 숏폼 시청이 기억력과 집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단발성 소비가 음악의 서사적 깊이를 빼앗아 가는 셈이다.

- 우리는 '15초의 마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분명 숏폼은 새로운 기회의 장이다. 레이블 없이도 전 세계 청중 앞에 설 수 있고, 한순간에 스타덤에 오를 수도 있다. 동시에 예술적 완성도와 음악의 깊이를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 양날의 검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과제가 아티스트와 팬, 그리고 플랫폼 모두에게 주어진 시점이다.
아티스트는 짧은 훅에만 매달리지 않고 곡 전체의 메시지를 지켜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팬은 숏폼에서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 뒤 전체 곡과 앨범을 찾아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플랫폼은 일회성 유행보다 장기적 음악 생태계를 고려한 구조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음악사가 변곡점을 맞는 순간을 목격 중이다. '15초의 마법'은 음악을 가볍게 소비하는 습관이 될 수도, 새로운 다양성과 기회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이 변화가 남길 결론은, 음악을 소비하는 우리 모두의 선택 위에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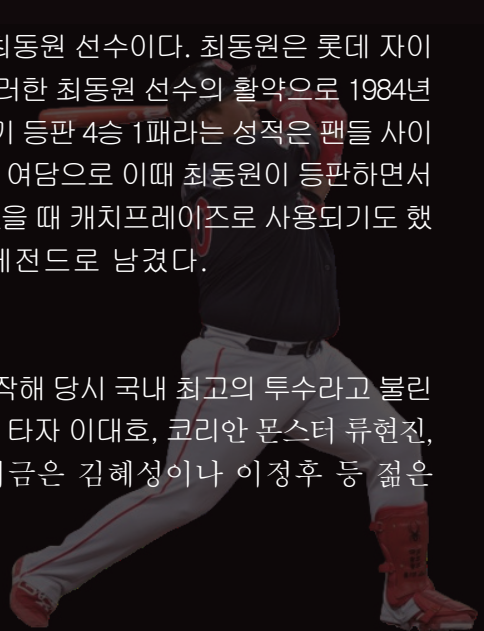
국민스포츠 야구
더 자세히 알고보면 재미있다!

김도현 기자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를 꼽으라면 단연코 야구일 것이다. 23년도에 LG가 무려 29년만에 통합우승(정규시즌 + 한국시리즈)을 달성하며, 그 인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24년도에는 기아가 무려 KBO 최초 12번의 우승을 달성하며, 다시 한번 야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25년도에는 삼성, 롯데, LG, 한화 등 최고 인기 팀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작년 최다 매진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는 국내 최초 1200만 관중을 넘어서며, 역대급 흥행과 관중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1970년대 고교 야구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프로야구 창설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1982년에 최초 6개 팀(삼성 라이온즈, MBC 청룡, OB 베어스, 해태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 삼미 슈퍼스타즈)이 참여했다. 프로야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경기는 MBC 청룡과 삼성 라이온즈가 맞붙었다. 1982년 3월 27일 서울운동장에서 치러졌으며, 시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다. 최초 한국시리즈 우승은 OB 베어스가 삼성 라이온즈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여담으로 개막전과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나온 드라마 같은 만루홈런으로 인해 “앞으로 10년은 더 먹고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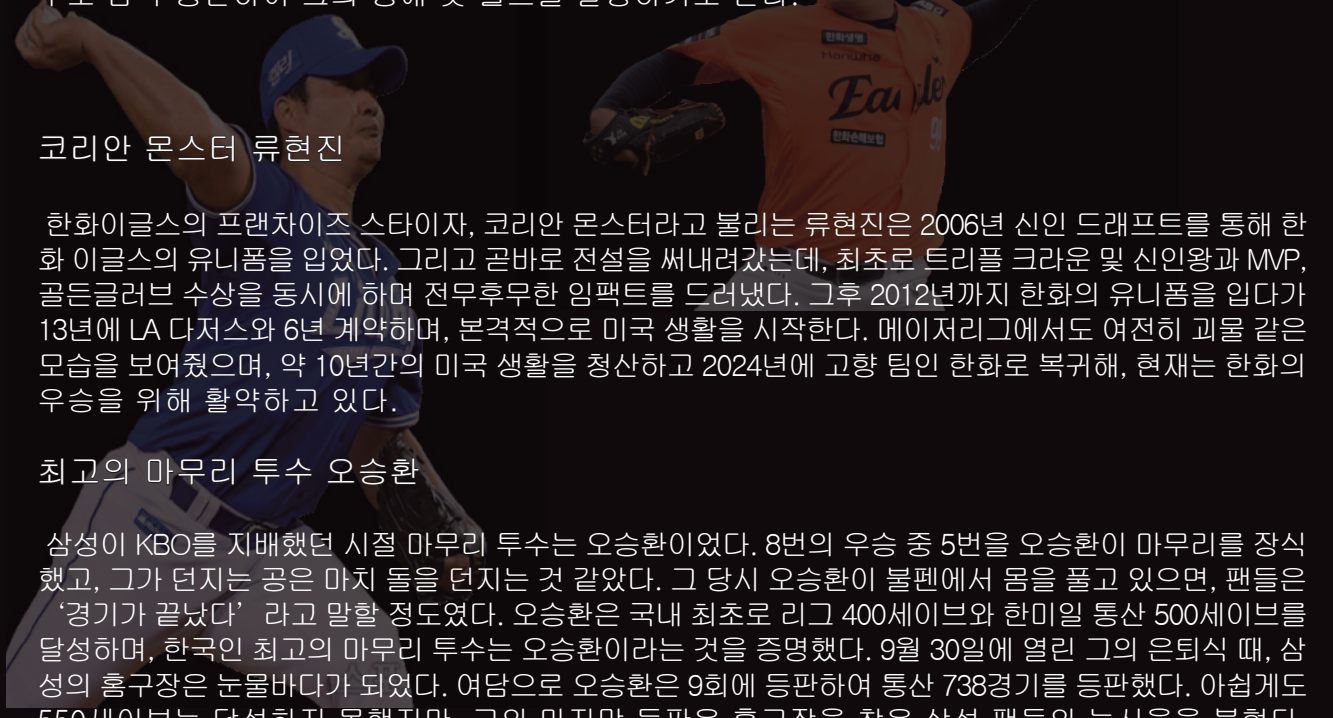
야구 하면 이 선수를 빼먹을 수 없다. 바로 1984 시즌 MVP에 빛나는 최동원 선수이다. 최동원은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로 시즌 27승을 달성한 에이스 중의 에이스였다. 롯데는 이러한 최동원 선수의 활약으로 1984년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었다. 특히 한국시리즈에서 나온 5경기 등판 4승 1패라는 성적은 팬들 사이에서 다시는 나와서도 안되고, 나올 수 없는 기록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여담으로 이때 최동원이 등판하면서 했던 “마 함 해보입시더”라는 말은 17년도 롯데가 가을야구에 진출했을 때 캐치프레이즈로 사용되기도 했다. 롯데 자이언츠는 최동원의 번호를 영구결번하여 그를 구단 레전드로 남겼다.



KBO는 많은 국내 스타들을 배출했는데, 위에서 언급한 최동원부터 시작해 당시 국내 최고의 투수라고 불린 선동열,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 박찬호, 핵잠수함 김병현,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삼성 왕조를 이끌었던 최고의 마무리 투수 오승환 등이 있다. 지금은 김혜성이나 이정후 등 젊은 선수들이 이 명성을 이어받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롯데 자이언츠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타격 7관왕을 비롯해 두 번의 트리플 크라운, 최다 경기 연속 홈런 세계 신기록 등 타자로서는 달성할 수 있는 기록들은 거의 다 달성했다. 특히 2010년에는 타율왕, 안타왕, 홈런왕, 타점왕, 득점왕, 출루율왕, 장타율왕을 수상하며 타격 부문 7관왕이라는 KBO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들을 세우며 정규시즌 MVP를 수상했다. 2001년부터 롯데의 유니폼을 입은 그는 2012년 롯데를 떠나 세계 무대에 도전하기를 원했고, 일본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생애 첫 우승 커리어를 달성한다. 이후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1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치고 2017년 그의 고향 팀인 롯데 자이언츠로 복귀한다. 이후 2022년 길었던 선수 생활의 막을 내린다. 구단과 KBO가 주최한 은퇴 투어를 진행하고, 마지막 일정인 사직구장에서 은퇴식을 진행했다. 최동원에 이어 2번째로 롯데의 영구결번 선수가 되었다. 여담으로 이대호는 마지막 경기 때 투수로 깜짝 등판하여 그의 생애 첫 홀드를 달성하기도 한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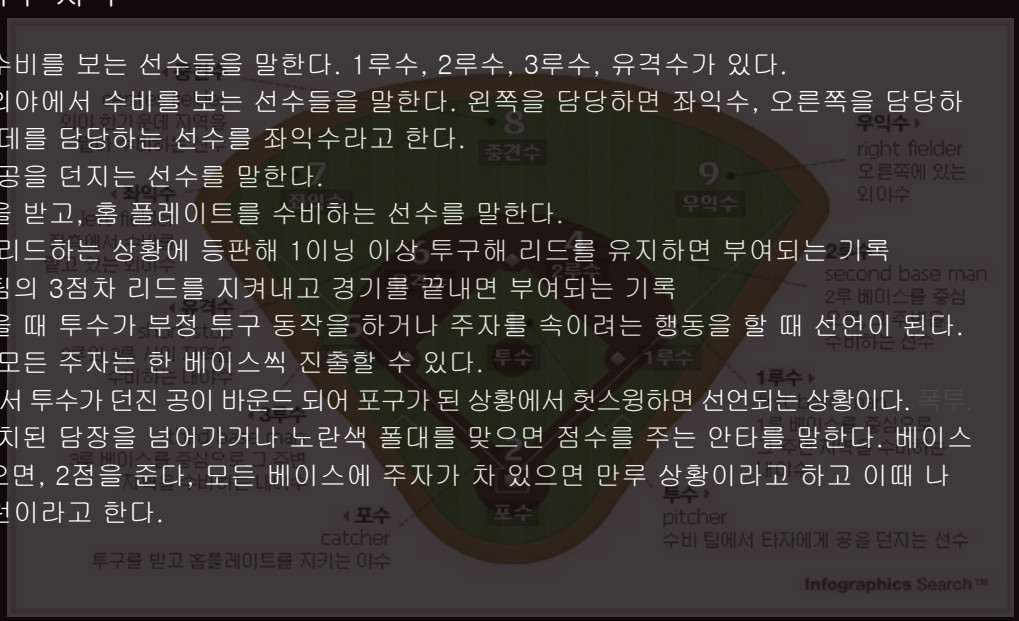
한화이글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코리안 몬스터라고 불리는 류현진은 2006년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한화 이글스의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곧바로 전설을 써내려갔는데,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 및 신인왕과 MVP, 골든글러브 수상을 동시에 하며 전무후무한 임팩트를 드러냈다. 그후 2012년까지 한화의 유니폼을 입다가 13년에 LA 다저스와 6년 계약하며, 본격적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한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여전히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줬으며, 약 10년간의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2024년에 고향 팀인 한화로 복귀해, 현재는 한화의 우승을 위해 활약하고 있다.

최고의 마무리 투수 오승환

삼성이 KBO를 지배했던 시절 마무리 투수는 오승환이었다. 8번의 우승 중 5번을 오승환이 마무리를 장식했고, 그가 던지는 공은 마치 돌을 던지는 것 같았다. 그 당시 오승환이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으면, 팬들은 '경기가 끝났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오승환은 국내 최초로 리그 400세이브와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를 달성하며, 한국인 최고의 마무리 투수는 오승환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9월 30일에 열린 그의 은퇴식 때, 삼성의 홈구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여담으로 오승환은 9회에 등판하여 통산 738경기를 등판했다. 아쉽게도 550세이브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지막 등판은 홈구장을 찾은 삼성 팬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야구 지식

내야수 : 내야 필드에서 수비를 보는 선수들을 말한다.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가 있다.
외야수 : 내야를 벗어나 외야에서 수비를 보는 선수들을 말한다. 왼쪽을 담당하면 좌익수, 오른쪽을 담당하면 우익수, 가운데를 담당하는 선수를 좌익수라고 한다.
투수 : 마운드 위에 올라 공을 던지는 선수를 말한다.
포수 :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고, 홈 플레이트를 수비하는 선수를 말한다.
홀드 : 구원 투수가 팀이 리드하는 상황에 등판해 1이닝 이상 투구해 리드를 유지하면 부여되는 기록
세이브 : 마무리 투수가 팀의 3점차 리드를 지켜내고 경기를 끝내면 부여되는 기록
보크 : 주자가 루상에 있을 때 투수가 부정 투구 동작을 하거나 주자를 속이려는 행동을 할 때 선언이 된다. 보크 선언이 되면 모든 주자는 한 베이스씩 진출할 수 있다.
낫아웃 :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투수가 던진 공이 바운드 되어 포구가 된 상황에서 헛스윙하면 선언되는 상황이다.
홈런 : 타자가 친 공이 설치된 담장을 넘어가거나 노란색 폴대를 맞으면 점수를 주는 안타를 말한다. 베이스에 주자가 2명 있으면, 2점을 준다, 모든 베이스에 주자가 차 있으면 만루 상황이라고 하고 이때 나온 홈런을 만루홈런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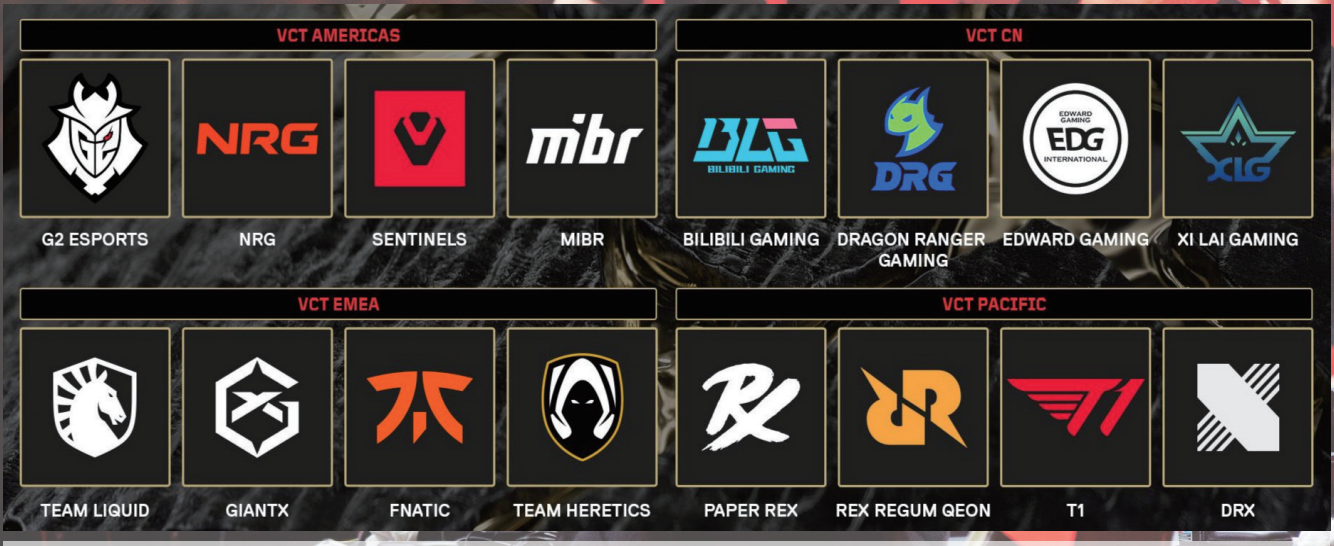


한국, 여전히 FPS의 벽을 넘지 못하다

이준기 기자

- 베를린, 이스탄불, 로스앤젤레스, 서울을 지나서

현재 카운터-스트라이크(CS) 시리즈를 넘어 차세대 FPS 게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 '발로란트'. 발로란트의 가장 큰 이벤트인 챔피언스가 올해에는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약 3주간(2025.09.12~10.05) 개최되었다. Pacific(아시아-태평양), EMEA(유럽), Americas(미국), CN(중국) 총 4개의 권역 리그에서 각 4개의 시드권 팀들이 출전하여 세계 최고를 가리는 챔피언스는 올해도 그 서사와 경기 수준이 역대급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언더독의 반란 NRG vs 전통 강호 Fnatic

결승전에서는 기세를 타서 결승까지 직행한 Americas의 2시드 NRG와 국제전 전통 강호인 EMEA 3시드 Fnatic이 맞붙었다.

1세트 전장 코로드와 2세트 전장 로터스에서는 NRG의 brawk 선수가 잘 사용되지 않는 장비 중 하나인 오딘으로 초반 주도권을 밀어붙여 각각 13:3/13:6이라는 큰 라운드 차이로 2개의 세트를 가져가게 된다. Fnatic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한 번도 못 만들어 냈으며, 특히 팀의 주축 중 하나인 Alfajer 선수가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3세트 전장 어비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NRG가 앞선 경기의 기세로 찍어 누르면서 전반전 11:1이라는 프로씬에서는 나오기 힘든 라운드 차이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후반전에서 kaajak 선수의 전진 수비를 시작으로 연승을 이어 나가고, 연장전에 끝에 15:13으로 승리한다. 다음 4세트 어센트에서도 Alfajer 선수의 폼이 되살아나, 기적적으로 2:2 세트 스코어를 만들며 마지막 5세트로 넘어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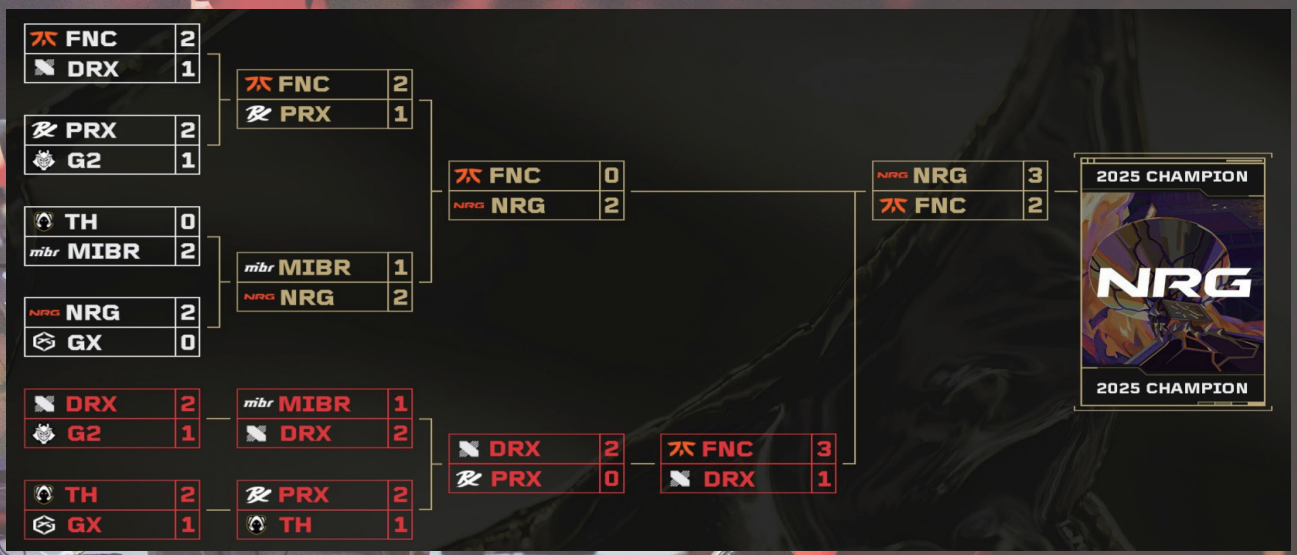
양 팀의 운명을 건 5세트 전장 선셋에서는 2023 챔피언스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던 Ethan 선수가 홀로 활약하면서 언더독 NRG의 우승을 만들게 된다. 추가로 Ethan 선수는 이번 챔피언스 파리를 우승으로, 최초 챔피언스 2회 우승자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된다.

- 한국의 해는 오지 않았다. DRX, 결승 코앞에서

한국팀에 있어서는 올해도 아쉬운 해였다. T1이 2025 마스터스 방콕에서 Americas 황제라고 불리는 G2 상대로 5세트의 격전 끝에 잡아내고 우승하는 서사를 써냈지만, 챔피언스 파리에서는 조별 리그 탈락이라는 뼈아픈 성적을 남기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조별 리그 탈락이 결정되는 경기의 상대는 방콕에서 맞붙었던 G2였다.

아쉬운 건 DRX도 마찬가지였다. 챔피언스 파리 후반부에 NRG와 함께 파죽지세의 언더독으로 부상한 Pacific 4시드 DRX. Pacific의 막차를 타며 챔피언스 파리에 입성했지만, 과거 국제 리그의 부진한 성적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진 못했었다. 하지만, 조별 리그 C조에서 EMEA 1시드 TL를 2:0 세트스코어로 2번 연속 잡아내면서 반전을 드러낸다.

이후 본선에서도 '코리안 킬러'라고 불리는 Americas 1시드 G2와 2022 챔피언스 이스탄불의 MVP, '브라질 보스' aspas 선수가 속해 있는 MIBR까지 차례로 격파하면서 언더독의 반란을 알



하위조 준결승에서는 '세계 1위 레이즈 플레이어'인 Jinggg 선수와 '오퍼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리는 something 선수가 속해 있는 Pacific 1시드 PRX와 맞붙게 되었다. 특히 PRX는 2025 마스터스 토론토에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고, 강한 돌파력과 교전력이 돋보이는 팀으로 Fnatic과 함께 우승 후보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DRX는 보다 더 공격적인 게임 운영을 통해 역으로 PRX를 리드해 나가면서 2:0 세트스코어로 결승 직행전에 향한다.

결승까지 마지막 한 걸음 남은 상황에서 만난 팀은 Fnatic. 첫 세트는 호기롭게 가져갔으나, 앞선 경기와는 다른 Bo5(5판 3선)방식의 영향 탓인지, 후반부로 갈수록 기세가 급격하게 기울면서 결국 1:3 세트 스코어로 챔피언스 파리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 둔한 메타 적응력, 동일한 조합, 고정된 역할

한국팀의 부진한 성적, 국제 대회에서 상위권 팀에게는 막히는 이유로는 둔한 메타 적응력과 동일한 조합, 고정된 역할 등이 매번 언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Gen.G의 경우에는 어센트를 제외한 모든 전장에서 바이퍼를 기용하는 2 스모크 조합을 기용해 왔으며, 타격대 또한 강한 돌파력과 회전력을 바탕으로 한 웨이레이, 요루와 같은 메타 픽이 아닌 전통 타격대를 고수하는 등의 요인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DRX는 웨이레이와 요루를 기용하면서 메타에는 잘 따라갔지만, 거의 모든 전장에서 동일한 조합을 사용하여, 간파당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T1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G2의 경우에는 trent 선수가 최근 메타에 거의 기용하지 않는 요원인 테호를 매번 기용하여 수준 높은 리테이크를 보여줬고, Fnatic은 감시자 포지션인 Alfajer 선수가 바인드에서는 테호(척후대), 선셋에서는 네온(타격대)을 기용하면서 조합과 역할군에 변화구를 주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우승한 NRG의 s0m 선수는 '잊혀진 요원'이라고 불리는 하버를 유일하게 기용하면서 상대편이 준비해 온 전략에 혼란을 주기도 하였다.

이렇듯 다른 팀과 비교해 보면 한국팀은 전반적으로 고유의 색깔이 없고, 지독하게 과거의 정공법만을 고수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 산티아고, 런던, 그리고 상하이를 기약하며

2024 마스터스 상하이에 이어서, 2025 마스터스 방콕까지. 작년에 이어 마스터스 2연속 우승이라는 기쁘지만, 조금은 슴슴한 성적을 마무리로 올해 발로란트 대회 시즌도 마무리되었다. 한국팀 입장에서는 자연스레 생각이 많아지는 한 해였을 것이다. 조합부터 메타까지, 그리고 더 넓게는 본인들이 가지는 고유의 색깔에 대한 문제까지 말이다.

내년은 마스터스 산티아고와 런던을 지나 챔피언스 상하이로 향하는 여정이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팬들은 이제 마스터스 우승을 넘어, 챔피언스의 우승을 기대하고 있다. 과연 그 기대에 응할 수 있을까.

10월 호

특집



들어가며,

가을은 공기가 서늘해지고, 일상이 조금은 느려지는 계절입니다.
잠시 여유를 내어 책 한 권을 읽거나, 영화 한 편을 보는 건 어떨까요.

가을에 어울리는 문장과 장면을 전하기 위해,
우리 기자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책 속 문장 하나, 영화의 한 장면이 누군가의 하루에 잔잔히 머물길 바라며.

지금, 우리의 가을을 채울 이야기들을 건넵니다.



《시와 산책》, 한정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서로를 모르고 살던 잎과 땅이 만나는' 가을이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 ≪시와 산책≫ 속 저자의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일상의 사소한 풍경이 새롭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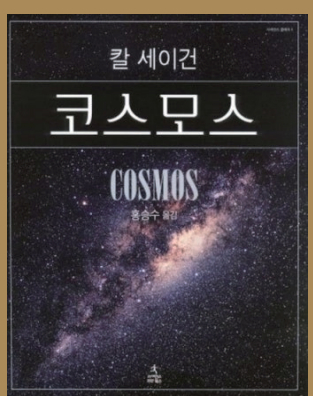
≪시와 산책≫은 시인 한정원이 시를 읽고, 산책하고, 삶에 대해 고민해 온 시간을 담아낸 잔잔하고 단정한 산문집이다.

산책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세상을 바라보는 행위이고, 시는 언어 속에서 순간의 감정을 붙잡아 두는 행위이다. 저자는 '산책'과 '시'를 나란히 놓음으로써, 우리가 무심히 지나쳐온 일상의 순간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삶의 방식을 제안한다.

책 속에는 저자가 직접 걸으며 기록한 산책의 풍경과 그 풍경에서 떠오른 시적 사유가 자연스럽고 풍부하게 녹아 있다. 책장을 넘길수록 저자와 함께 걷는 듯한 경험을 하며, 연필을 잡은 나의 손은 계속해서 밑줄을 긋고 있었다. 심지어 책을 덮은 순간에는 나만의 산책길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고 싶거나, 시와 산책을 통해 일상의 풍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마주하고 싶은 이들에게, 한정원의 ≪시와 산책≫은 작은 벗처럼 곁에 두고 싶은 책이 될 것이다.

천지유 기자



《코스모스》, 칼 세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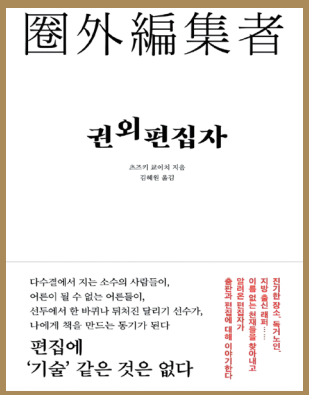
시대를 초월한 과학 교양의 고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단순한 천문학 책을 넘어 인류의 지적 대서사시이다. 저자는 우주의 광활함을 '코스모스'라는 단어에 담아, 138억 년의 우주 역사를 1년으로 압축한 '우주 달력'이라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별의 잔해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깨닫고, 생명의 기원과 진화의 신비를 탐험하게 되는 경험을 한다.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부터 케플러와 뉴턴의 위대한 발견까지, 과학이 어떻게 미신과 편견을 넘어 진실을 밝혀왔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한다. 칼 세이건의 깊은 통찰과 시적인 문체는 차가운 과학에 따뜻한 감성을 불어넣으며, 우리 존재의 소중함과 겸손함을 일깨워 준다.

≪코스모스≫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묻게 만드는, 모든 세대를 위한 필독서이다. 나는 이 책을 다 읽은 후, 내가 보았던 밤하늘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았고 조금 더 상상력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을 읽고 인류의 지성이 이룩한 가장 아름다운 탐험에 같이 동참해 보았으면 좋겠다.

김규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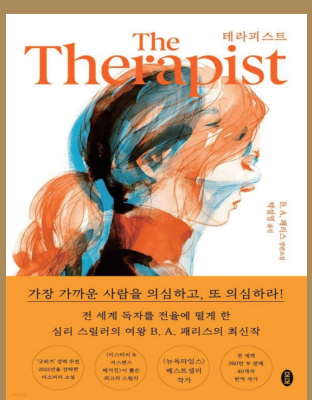
《권외편집자》, 츠즈키 교이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편집물을 만난다. 지금 읽고 있는 이 잡지부터, 전공 서적, 길거리에 나뒹구는 팸플릿까지. '현대 사회에서편집' 이란, 단순히 정보를 엮어내는 것을 넘어 시선을 안내하고, 새로운 사유의 관점을 제시한다. 츠즈키 교이치의 ≪권외편집자≫는 바로 이 시선에 관한 이야기다.

츠즈키 교이치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사진가이자 편집자, 저널리스트다. 일본의 잡지 ≪뽀빠이≫의 창간 멤버이기도 한 그는 잡지와 책, 전시와 프로젝트 등 경계 없는 편집을 실천하며, 편집이 단순히 지면을 꾸미는 기술이 아닌 세상을 해석하는 태도임을 보여준다.

책 속에는 편집자의 고민과 열정, 그리고 콘텐츠를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 담겨 있다. 단순히 편집자라는 직업군의 이야기를 넘어, 오늘날 각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도쿄의 평범한 단칸방을 담은 ≪Tokyo Style≫, 옷에 냄새가 밸까 봐 집에서는 물만 마시는 패션 브랜드 신봉자들을 모은 ≪Happy Victims≫. 경계 없는 그의 편집물을 따라가다 보면, 편집을 업으로 삼지 않은 사람에게도 흥미로운 영감을 줄 것이다.

권혁주 기자



《테라피스트》, B. A. 페리스

누군가를 의심해본 적이 있는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자신'만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은 그리 유쾌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무엇인가 사람들이 숨기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제외한 사람들만이 비밀을 알고 있는 듯 한 감정을 느껴봤다면 이 책은 소름끼치게 다가올 것이다.

모두가 주인공을 조현병이라고 말하고, 주인공 역시 자신이 본 것이 진실인지 헷갈리는 상황 속 계속해서 진실을 파헤쳐나가는 이야기이다.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이 사실인지 혼동하게 만듦으로써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나' 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상상마저 하게 만든다. 후반 모든 퍼즐이 맞춰지며 숨겨져 있는 사실이 드러나는 심리 추리소설이다.

송지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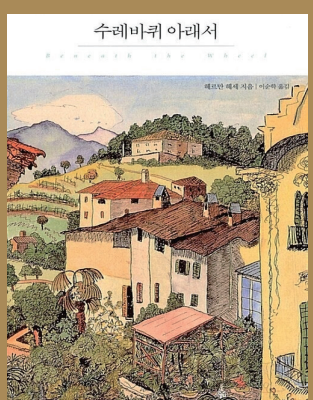
《한국 조경 50년을 읽는 열다섯 가지 시선》, 한국조경50 편집위원회

《한국 조경 50년을 읽는 열다섯 가지 시선》은 한국 조경의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는 비평서이자, 앞으로의 50년을 설계하는 길잡이 같은 책이다.

이 책은 단순한 연대기나 작품집이 아니라, 조경이라는 분야를 다층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열다섯 가지 시선'을 담고 있다. 1부에서는 한국 조경 50년의 지형과 풍경을 조감하는 글들을 만날 수 있다. 이명준의 이론과 미학, 최영준의 설계 공모, 임한솔의 전통 재현, 고정희의 식재 디자인 등 여섯 편의 글은 시대를 가로지르는 주요 흐름과 이슈를 한눈에 보여준다. 마치 한국 조경의 지도 위를 나는 듯한 느낌으로, 그 속에 담긴 변화를 관찰하게 된다. 2부는 주요 단면에 대한 클로즈업이다. 김아연의 생태 공원부터 김영민의 아파트 조경, 김정은의 사이와 경계까지 아홉 편의 글은 각각의 주제를 깊이 있게 포착하며, 한국 조경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실제 사례와 담론을 연결해 설명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지식을, 전문가들에게는 길을, 일반인에게는 조경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묻게 된다. 지난 50년을 돌아본 후, 당신은 앞으로의 50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조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한국 현대 조경을 이해하고 싶은 누구라도 한 번쯤 펼쳐볼 만한 책이다.

강준혁 기자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 헤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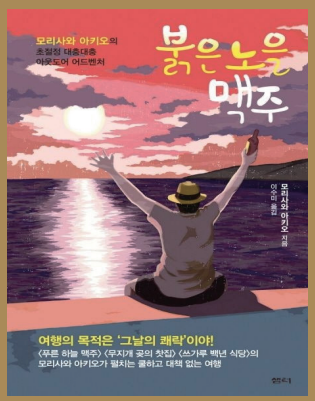
독일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는 지금도 많은 청춘에게 울림을 주는 작품이다.

주인공 한스는 마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신학교에 입학하지만, 끝없는 경쟁과 성적 압박 속에서 점점 지쳐간다. 부모와 교사, 제도의 무게는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작 그는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이 작품은 100년 전 독일이 배경인데, 다 읽고 나면 낯설지 않게 다가온다.

입시와 성적, 끝없는 자기계발 속에서 흔히 들려오는 말, "더 잘해야 해"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메아리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스가 겪는 좌절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수레바퀴"처럼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사회 구조의 압력,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모든 청춘의 이야기다. 하지만 작가는 절망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너는 지금 진정한 너의 길을 걷고 있는가?"라고 묻는다.

『수레바퀴 아래서』는 여전히 불안과 압박 속에 흔들리는 대학생들에게 깊은 공감을 던진다. 바쁘게 달리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가 진정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곱씹어보게 만드는 책.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을 건네고 있다.

송민선 기자



《붉은노을 맥주》 – 모리사와 아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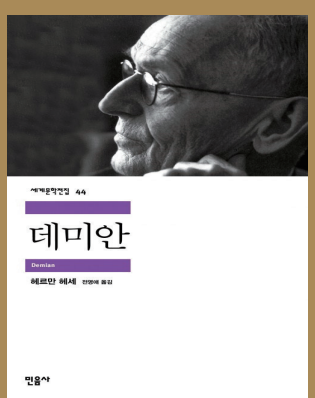
이 책은 모리사와가 혼자 다니면서 겪게 되는 황당하고 웃긴 여러 에피소드를 주로 다룬 에세이 형식의 소설이다. 주인공은 오토바이 한 대를 가지고 일본을 여행하며, 자연과 하나 되어 자기도 하고, 배가 고플 때면 무작정 강으로 가서 은어를 잡거나 밤새 맥주를 마시고 방파제에 누워 별을 바라보는 등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그런 낭만을 즐긴다.

핸드폰도 질리고 뭘 해도 재미가 없을 때 이 책을 한 번 읽어보는 걸 추천한다. 다른 소설책과는 달리 에세이를 읽는 느낌이 강하고, 무엇보다 에피소드로 나누어져 있어 읽기도 편하다. 가끔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펼치지만, 그마저도 유쾌하게 느껴지고 '저 사람과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무척 즐거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경쟁 사회 속에서 바쁘게 싸워가고 있는 우리.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멈춰서서 쉬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힘든 일이 있어도 맥주 한 캔이면 행복을 느끼는 이 책의 주인공처럼. 한 번 사는 인생 재미없게 살면 너무 손해잖아.

"오토바이와 맥주만 있으면 그날 그날이 파티야!! 여행에서 나를 찾거나 세상을 경험한다고? 개뿔! 여행의 목적은 '그날의 쾌락' 이야!"

김도현 기자



《데미안》 – 독서의 계절 그리고 방황의 계절

헤르만 헤세의《데미안》은 한 소년 싱클레어가 데미안이라는 또 다른 소년을 만나면서 기존의 세계관을 깨뜨리고,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소설로, 종교적 상징과 철학적 질문이 촘촘히 얽혀 있지만, 본질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보편적인 물음에 대한 이야기다 .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한 번 씩은 들어봤을, 작품 속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이다. 알은 안전하지만 동시에 감옥이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껍질 안에 갇혀 있지만, 결국 깨뜨리는 고통을 통해서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청춘들의 혼란, 진로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대한 저항,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모두 이 파계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소년들이지만 사실 《데미안》은 청춘의 방황만을 그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언제나 방황하기 때문이다. 가을은 많은 것을 잃는 계절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 《데미안》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자신의 껍질을 깨뜨릴 용기를 낼 수 있겠느냐고.

윤재인 기자



< 노팅 힐 > (1999),
로저 미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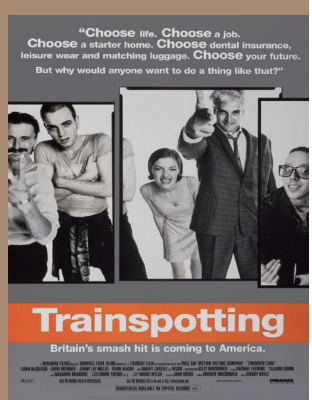
사랑이 한 번쯤 스쳐간 사람들의 마음에, 조용히 다시 온기를

런던의 조용한 거리 노팅힐에서 헌책방을 운영하는 윌리엄은, 어느 날 우연히 가게에 들어선 세계적인 배우 애나를 만난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은 뜻밖의 인연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간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평범한 일상의 틈에서, 그들의 사랑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스며든다.
감정을 서두르지도, 과하게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한 걸음씩 서로에게 다가서는 두 사람의 모습은 가을의 속도와 닮아 있다.

영화 속 따뜻한 조명과 비 내린 런던 거리, 브라운과 베이지 톤의 의상, 그리고 Elvis Costello의 〈She〉까지 모든 장면이 가을의 감성을 시각과 청각으로 완성한다.
부드럽고 클래식하며, 약간은 쓸쓸한 아름다움 속에서 〈노팅힐〉은 조용히 스며드는 사랑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일까, 보고 나면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저민다.

천지유 기자



<트레인스포팅>(1996),
대니보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 모든 선택지를 걷어차 버린다. 대니 보일 감독의 <트레인스포팅>은 그런 영화다. 90년대 스코틀랜드, 헤로인에 절어 미래를 저당 잡힌 렌턴과 친구들. 영화는 이들의 무책임한 질주를 멋으로 포장하는 대신, 가장 추악하고 비루한 현실로 스크린에 가감 없이 토해낸다.

이기 팝의 음악에 맞춰 거리를 질주하는 오프닝,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화장실로의 다이빙, 그리고 언더월드의 'Born Slippy' 까지. 이 영화는 단순한 필름 한 편을 넘어, 90년대 대중문화의 강렬한 체험이다. 필자가 <트레인스포팅>을 추천하는 이유는 단순히 스타일리쉬해서가 아니다.

대니 보일이 선사하는 '청춘' 이 대학생에게 꼭 맞기 때문이다. 대니 보일은 단순히 한 세대의 일탈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청춘의 방황에 옳고 그름 따위는 정하지 않고, 외로운 가을바람을 견디는 청춘의 방황에 찬사를 보낸다. 학기가 끝나기 전, 이 영화를 시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당신의 가을에 가장 지독한 성장통을 선사할 것이다.

권혁주 기자



<리틀 포레스트>(2018), 임순례

결실과 사색의 계절: '리틀 포레스트'가 가을에 건네는 따뜻한 위로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지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주인공이 사계절의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는 이야기를 그린 힐링 드라마다.

주인공은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땀 흘려 일구어낸 음식과 그 음식에 얽힌 엄마와의 추억을 되새기는 과정을 통해 결국 스스로 일어서서 다음 계절을 맞이할 힘을 얻게 된다.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는, 가을이 주는 정서적 분위기와 영화의 메시지가 절묘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을은 여름내 고생했던 노동의 결과물을 얻는 시기로, 밤 조림, 곶감 등 저장 음식을 준비하며 겨울을 대비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한 해를 갈무리하고 내면을 단단히 채울 시간을 가지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과 붉게 물든 단풍은 보는 이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며, 차분하게 가라앉은 분위기는 복잡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나를 위한 휴식'을 취하고 싶어지는 가을날의 정서를 온전히 담아낸다. 따라서 이 영화를 쓸쓸함 속에서 따뜻한 위로를 찾는 가을날, 내면의 '작은 숲'을 가꾸고자 하는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송민선 기자



<오늘의 나는 내일의 너와 만난다> (2016), 미키 타카히로

〈오늘의 나는 내일의 너와 만난다〉는 바쁜 일상 속,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얼굴들 사이에서 운명처럼 마주친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지하철 안,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는 눈에 띄게 특별했다. 남자 '타카토시'는 첫눈에 그녀에게 끌렸고, 그녀 또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평범한 일상에서 피어난 따뜻한 인연. 그렇게 그들은 사랑에 빠졌다. 매일 조금씩 가까워지고, 서로의 세계에 스며들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사랑 뒤에는 결코 평범하다고 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타카토시의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지만, 에미의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거슬러 간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들의 시간은 서로를 향해 거꾸로 흘러간다. 타카토시에게는 점점 익숙해지는 사랑이 에미에게는 매일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다. 그녀는 알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점점 모르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될 것임을. 그럼에도 그녀는 그 하루하루를, 타카토시와 함께한 매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간다.

타카토시가 기억하는 첫 만남은 에미에게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고, 그녀가 처음 만나는 그는 이미 그녀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 남자다. 그 아이러니한 시간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닿기 위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언젠가는 엇갈릴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오늘을 살아간다. 내일이 없어도, 어제가 사라져도, 지금, 이 순간만은 진심이길 바란다.

강준혁 기자

편집국장 송지훈
사회부장 이준기
정기자 김도현 김동주 권혁주 김규완 강준혁 송민선 윤재인
수습기자 천지유

모람모람

국립강릉원주대학교